

清代 說文學者の 金文 연구*

- 金文에 대한 段玉裁의 학술적 관점을 위주로

오 제 중
(건국대학교)

1. 緒 論

漢字의 造字 원리를 포함한 字形에 관한 연구는 東漢 許慎이 편찬한 중국 최초의 字書인 『說文解字』¹⁾를 대표로 들 수 있다. 이후 『說文』에 관한 연구는 역대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清代에 이르러 당시의 학술 사조인 考證學의 발달로 인하여 흥기한 說文學의 영향으로 『說文』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許慎의 뒤를 이어 『說文』연구를 이끈 대표적인 清代의 연구자들은 段玉裁, 王筠, 朱駿聲, 桂馥 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을 說文四大家라 말한다.²⁾ 특히 이들 중에서도 段玉裁는 『說文解字注』를 통해 역대 說文學 연구자의 대표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許慎은 『說文』에서 청동기의 銘文인 金文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이는 漢代의 시대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는데 당시에 출토된 靑銅器의 수량이 아직 소수에 불과했으며 또한

* 이 논문은 2011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1) 이하 모두 『說文』으로 줄여 적는다.

2) 段玉裁의 『說文解字注』, 王筠의 『說文釋例』와 『說文句讀』, 朱駿聲의 『說文通訓定聲』, 桂馥의 『說文義證』 등은 이 시기 『說文』 연구의 대표작이다.

비록 새로운 靑銅器가 발견되어도 銘文을 살필 수 있는 拓本法이 발명되지 않아 원활한 자료의 왕래가 불가했기 때문에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說文』에는 직접적인 金文 자료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이와는 상대적으로 清代의 說文學 연구자들은 풍부한 金文 자료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金文學을 비롯한 文字學 영역에서 수준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량으로 새로운 청동기가 새롭게 출토되었으며 이로 인해 金文學 연구의 수준이 앞선 宋代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특히 청대 말기에 이르러 鳴大澂, 孫詒讓과 같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說文學과 결합한 金文學은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說文四大家의 하나인 王筠을 비롯한 청대 중엽의 일부 『說文』 연구자들은 이미 金文을 문자학 연구에 적극 활용하였고 이러한 배경 아래서 청대 말기에 이르러 金文學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역대 『說文』 연구자 중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그가 지은 『說文解字注』를 통해 『說文』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든 段玉裁의 경우 과연 그가 金文學에 대한 학술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이러한 전제가 성립된다면 『說文解字注』에 이러한 것이 진정으로 반영되고 있는 지에 관해서는 다소 엇갈린 견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金文과 같은 古文字學 영역에서의 『說文』 연구는 주로 字形에 주목하여 『說文』에 수록되어 있는 小篆, 古文, 籀文 등과 金文 또는 戰國文字를 비롯한 古文字와의 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이에 비해 說文學과 金文學 이라는 두 가지 조류의 학술적 관점으로의 비교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직접적인 『說文』 수록 자형과 청동기 銘文의 비교를 통한 연구법이 아닌 학술사적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說文四大家 중의 단연 으뜸인 段玉裁가 金文學에 있어서는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이와는 상대적인 기타 청대의 說文學 연구자들의 견해와 비교하여 段玉裁의 金文學에 대한 학술적 견해를 규명해 보려고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段玉裁를 비롯한 당시 『說文』 연구자들의 학술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청대 說文學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說文』과 金文에 관한 段玉裁의 학술적 견해를 종합하여 清代 說文學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공과를 논하고자 함이다.

2. 段玉裁와 清代 說文學者 비교

清代 언어문자학 영역에 대한 학술 사조에 대해 역대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으로 說文四大家는 『說文』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학술 연구자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통 小學의 각 영역에 고른 성과를 보였다.³⁾ 이처럼 당시 文字, 聲韻, 訓詁와 같은 전통 언어문자학의 각 방면에 고른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說文』에 기초한 문자의 形音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특히 段玉裁는 일반적으로 『說文』에 注를 더한 것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古音學 영역에서도 분명한 연구 성과를 남겼다.⁴⁾ 이와 함께 段氏의 『說文解字注』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을 살필 수 있다.⁵⁾

3) 「四大家的段氏, 在古音韻方面多所發明, 桂氏長於義理, 朱氏闡明通假, 而王氏則在形體方面, 發覆辨惑, 均各有獨到之處。」(설문사대가 중의 단옥재는 고대 음운학 방면에 새로운 발명이 있으며, 계복은 문자의 의리에 능하며, 주준성은 문자의 통가에 밝았으며, 왕균은 문자 자형의 원리를 분별했으니 모두 각자의 독창적인 점이 있었다.) 姚孝遂『許慎與說文解字』, 62쪽.

4) 「氏著『說文解字注』, 後附「六書音均表」, 實爲清儒言古韻書中最爲精要之著, 「六書音均表」共計伍表, 第一表爲「今韻分十七部表」, 取『廣韻』二百六部, 補鄭庠「顧炎武」江永三家之所未備, 釐其平入相配之未確, 定古韻爲十七部, 其各部分用之故, 後皆有說, 以闡明其所謂古本音之義也。」(단옥재가 지은 『설문해자주』의 뒤에는 「육서음운표」가 들어있는데 이는 실로 청대 학자들의 고음학 연구서 중 가장 핵심적인 저술이다. 「육서음운표」에는 모두 다섯 개의 표가 수록되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금운분십칠부표」이다. 「광운」의 206부를 취하여 정상, 고염무, 강영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평성과 입성의 배열이 정확하지 않은 것을 정리하여 고운 17부를 확정하였다. 각 운부가 나뉘는 원리에 대해 후에 모두 설명하여 고음의 의리에 대해 분명하게 밝혔다.) 陳新雄『古音學發微』, 191쪽.

5) 劉盼遂「段玉裁先生年譜」, 『劉盼遂文集』, 433쪽.

按許祭酒著『說文』以明經，先生本經義以注『說文』。故能湊入單微，允稱合作。故此書宗旨，仍主以字證經以經證字而止。若晚近文字學家專研字跡，而不顧經術，蓋與先生非同道矣。先生徧研伍經，皆有造述。故『說文』之學，遠非嚴'桂'王'朱諸家可及。(허신의『설문』에 따라 경문을 밝게 하는 것으로 단옥재는 경문의 뜻으로『설문』에 주석을 달았다. 따라서 능히 작은 것을 모아 하나로 합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의 요지는 문자로 경문을 증명하고 경문으로 문자를 증명하고자 함이다. 만일 근세의 문자학 연구자들이 오로지 문자의 흔적만을 연구하고 경술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아마도 단옥재의 도리와는 다를 것이다. 단옥재는 오경을 두루 연구하여 저술을 남겼다. 따라서 설문학에 있어서는 嚴可均, 桂馥, 王筠, 朱駿聲과 같은 이들이 결코 미칠 수 없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옥재는 經書에 능통하여 이를 통해 許慎의 문자 풀이를 보충하고 또한 이렇게 밝혀진 문자의 本義를 經典 해석에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당시 說文四大家를 비롯한 『說文』 연구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許慎은 漢代의 대표적인 經學家로써 「五經無雙」이라 칭송될 정도로 經書에 능통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許慎을 추앙했던 段玉裁 역시 이러한 학술 사조를 이어받아 문자의 本義와 經文의 관계에 대해 항상 고민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段玉裁가 音韻學 분야와 經典을 이용한 문자 풀이에 능통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段氏와 金文學과의 학술적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沈家本은 「說文校議議序」에서 朱駿聲을 제외 한 나머지 說文四大家의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⁶⁾

近今自乾隆以來，群重許學，治之者亦人才輩出，以嘉慶道光中爲尤盛。段氏玉裁深於經術，每字必溯其源。桂氏馥蒐集宏富，能會其通。王氏筠承諸家之後，參以金石，義例益精。其餘諸家，各擅所長。(근래 건륭시기 이래로 많은 이들이 설문학을 중시하여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 또한 여럿이 나왔는데 가경과道光시기에 더욱이 흥성하였다. 단옥재는 경

6) 『說文解字詁林』, 第一冊, 83쪽.

술에 조예가 깊어 매 글자마다 반드시 근원을 찾았고, 계복은 풍부한 문자 자료를 수집하여 그것을 관통하여 엮었으며, 왕균은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이어받은 후에 금석 자료를 참고하여 문자의 뜻풀이가 더욱 정교하였다. 이외 다른 여러 학자들 또한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段玉裁에 대해서는 앞선 인용문의 내용과 같이 經文에 능통하여 이를 문자의 本義 탐색에 적극 활용했다는 내용은 있으나 金文學과 상관된 것은 찾을 수 없는 반면 王筠에 대해서는 문자학 연구에 金石文을 활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丁山은 「王葦友先生年譜後序」에서 이에 관해 좀 더 상세히 적고 있다.⁷⁾

方清之盛也, 鐘鼎之學復熾, 阮鳴諸家始以『說文』疏通鼎銘, 繼以鼎銘印證經傳. 至鳴大澂『字說』直據鼎銘刊許書正篆與故訓之誤, 近世古文字學家皆奉爲圭臬. 尋其前蹤, 則葦友先生『釋例補正』實啓其蒙. 是奮筆刊篆變之詆者段氏創其範疇, 葦友先生始證以古代銘刻. 古文字學得有今日輝煌成績者, 段王二先生導夫先路, 功相埒也. (청대의 흥성으로 금문학은 다시 불타올랐다. 阮元和 鳴大澂과 같은 학자들은 『설문』을 가지고 청동기 명문을 소통하기 시작하여 이를 이어서 청동기 명문으로 경전을 인종하였다. 오대정의 『자설』은 청동기 명문을 직접 들어 『설문해자』의 소전과 훈고의 오류를 수정하여 근세의 고문자 연구자들이 모두 이를 규범으로 받들었다. 이러한 것의 앞선 발자취를 찾아보면 왕균의 『석례보정』은 실로 그 어두움을 활짝 연 것이다. 이와 같은 거칠 것 없는 필치로 전서의 와변을 교정한 것은 단욱재가 그 개념을 창안한 것이고 왕균은 처음으로 고대의 청동기 명문으로 이를 증명하였다. 고문자학이 오늘날 이와 같은 찬란한 성적을 얻은 것은 단욱재와 왕균이 앞길을 인도한 것으로 그들의 공로는 서로 같다.)

阮元은 청대 嘉慶 연간의 대표적인 학자이고 鳴大澂은 이보다 조금 늦은 道光과 咸豐 연간 이후에 등장했다. 특히 鳴大澂은 청대 말기의 대표적인 金文 연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지은 『說文古籀補』는 대량의 청동기

7) 王筠 『清詒堂文集』, 214쪽.

銘文과 小篆 이전의 石鼓, 古璽, 貨幣, 古陶 등의 고문자 자료를 활용하여『說文』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잘못된 부분 또한 바로 잡았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金文과 같은 고문자 자료를 『說文』연구에 직접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鳴氏의 『字說』 또한 『說文古籀補』와 유사한 성격의 字書로 金文을 이용하여 개별 글자의 풀이를 하였다. 즉 丁山의 견해에 따르면 청대 말기에 이와 같은 金文學의 연구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바로 王筠과 段玉裁와 같은 앞선 說文學者들의 연구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段玉裁의 經典을 이용한 글자 풀이와 『說文』 내용을 보완한 注文 등의 성과가 후일 古文字學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앞선 沈家本의 분석과 같이 金文學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說文學者로는 段玉裁가 아닌 王筠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 姚孝遂는 심지어 段玉裁는 청동기 銘文과 같은 고문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⁸⁾

戴東原, 段玉裁師徒, 王念孫, 王引之父子, 錢大昕, 錢大昭昆仲, 于文字, 聲韻, 訓詁之學, 均淹博精深. 然而他們對於『說文』古籀之外的早期文字資料, 採取懷疑以至漠視的態度. 否則的話, 以他們的聰敏才智, 定能在這方面取得更大的成就. (대진과 단옥재 사제, 왕념손과 왕인지 부자, 전대흔과 전대소 형제는 문자학, 성운학, 훈고학에 모두 학식이 깊고 심오했다. 그러나 그들은『설문』에 들어있는 고문과 주문 이외의 고대 문자 자료에 대해서 회의와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총명한 재능과 지혜로 반드시 이 방면에 더욱 커다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戴震, 王念孫, 錢大昕 등은 모두 당대의 대표적인 古音學 연구자들이다.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段玉裁가 古音學 방면에도 성과를 이룬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위의 인용문에 열거된 나머지 학자들과는 小學 영역에서의 연구 방향과 범위가 서로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段玉裁는 聲韻學과 文字學 방면 모두에서 고르게 두각을 나타낸 반면 나머지 학자

8) 姚孝遂 『許慎與說文解字』, 62쪽.

들은 주로 音韻學에만 매진하였다. 물론 이들 중 戴震과 같은 이는 六書에 대해 소위 「四體二用說」과 같은 독창적인 견해를 처음 제시하기도 했으므로 열외로 하기로 한다. 따라서 姚孝遂가 段玉裁를 이들과 함께 언급하며 古文字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단정 지은 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戴震과 段玉裁의 영향 관계이다. 戴震은 文字와 音韻 그리고 訓詁 방면에 고른 두각을 나타냈으며 그의 제자인 段玉裁는 이러한 스승의 학풍을 계승 발전시켰다.⁹⁾ 따라서 段氏가 청동기 銘文을 비롯한 古文字 영역 보다는 전통 小學 방면에 힘쓴 것은 그의 스승인 戴震의 영향 또한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대 說文學者들 중에 金文 자료를 연구에 직접 활용한 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王筠이며 段玉裁는 이에 비해서 古文字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역대 『說文』 연구자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段玉裁가 金文 자료를 연구에 활용했는지 여부와 그의 金文學에 대한 학술적 관점은 어떠한지에 관해 이하의 본문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段玉裁의 金文學 관점

段玉裁의 金文學에 대한 관점을 살피기에 앞서 그가 청동기 銘文을 說文學 연구에 활용했는지 여부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羅振玉은 『說文古籀補跋』에서

9) 「其治學由聲音文字以求訓詁, 由訓詁以求義理, 謂義理不可空憑胸臆, 必求之于古經, 求之古經而遺文垂絕, 今古懸隔, 必求之古訓, 古訓明則古經明, 古經明則聖人賢人之義理明. ……其後又有其弟子段玉裁廣倡其說, 影響甚大。」(대진의 치학 방법은 성운과 문자로부터 훈고를 찾는 것이다. 훈고로부터 의리를 구하여 의리를 말함에 있어 가슴 속 생각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경전에서 찾아야 한다. 경전에서 구하나 남겨진 글이 거의 없어 고금 간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옛 훈고에서 구해야 한다. 옛 훈고가 밝으면 경전이 밝으며, 경전이 밝으면 성인과 현인의 의리 또한 밝아진다. ……이후 대진의 제자인 단옥재가 스승의 학설을 넓게 발전시켰으니 그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 姚孝遂『中國文字學史』, 310쪽.

段玉裁가 金文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¹⁰⁾

予冠歲受小學，篤好金壇段氏注。顧疑當時吉金文字之學已昌盛，而段君於許書所載古籀文，未嘗援據吉金款識爲之考訂，以爲美猶有憾。(내 스무 살 무렵 소학을 익힘에 있어 금단 사람인 단옥재가 지은『설문해자』를 독실하게 좋아하였다. 돌아보면 아마도 당시 이미 금문학이 창성했지만 단옥재는『설문해자』에 수록되어 있는 고문과 주문에 대해 청동기 명문을 근거로 삼아 고증을 한 적이 없으니 실로 완전한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을 따름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羅振玉은 청말 이후의 대표적인 고문자 연구가로 甲骨文과 金文 모두에 능통하였다. 그의 판단으로는 段玉裁는 청동기의 銘文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는 金文學이 흥성하기 시작한 당시의 시대 상황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段玉裁가 평생의 심혈을 기울여 『說文』 연구에 매진하여 거둔 성과에 대해 丁山은 「王荦友先生年譜後序」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¹¹⁾

段氏寢饋許書，三十餘年，凡經籍異文，文字形音相通之理，綜其條例，辨及幾微，上探造字原則，下極古籀形變，六轡在握，刪訂大徐，所改訂者不僅傳刊之誤，有時糾及許君原作，點畫之微，竟與商周古刻神契。當時學者遂大共非訾其勇于改古矣。(단옥재는 허신의 『설문해자』를 항상 곁에 두고 삼십여 년의 세월을 보냈다. 무릇 경전 내용의 다름과 문자의 자형과 자음이 서로 통하는 이치에 대해 그 조례를 모아 작은 차이까지도 분별하였다. 위로는 문자가 만들어 지는 원칙을 탐구하였으며 아래로는 고문과 주문 자형의 변화에까지 이르러 말의 여섯 고삐를 움켜쥐듯이 대서본을 산정하였다. 이처럼 개정한 것은 간행되어 전해지는 것의 오류만이 아니라 때로는 허신 『설문해자』의 원작의 규명에까지 이르러 점과 획의 미세한 차이가 마침내 상주시대의 명문과 신기하게 들어맞았다. 허나 당시의 학자들은 소신 있게 고문을 고친 것에 대해 크게 비방하였다.)

10) 『說文解字詁林』，第一冊，446쪽.

11) 王筠『清詒堂文集』，213쪽.

段玉裁가 『說文』의 내용을 교정하고 보충한 결과가 金文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가 실제로 金文의 가치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선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다. 段玉裁는 『說文』 敍의 「郡國亦往往於山川得鼎彝，其銘即前代之古文，皆自相似。」(여러 군국의 산천에서 가끔 청동기가 발견되는데 그 명문은 바로 전대의 고문으로 모두 이와 서로 비슷하다.)는 내용 아래 다음의注를 달았다.¹²⁾

郡國所得秦以上鼎彝，其銘即三代古文。如郊祀志上有故銅器，問李少君，少君曰，此器齊桓公十年陳於柏寢。已而案其刻，果齊桓公器。又美陽得鼎，獻之有司，多以為宜薦見宗廟，張敞按鼎銘勒而上議。凡若此者，亦皆壁中經之類也。皆自相似者，謂其字皆古文，彼此多相類。(여러 군국에서 발견되는 진대 이상의 청동기에 적혀있는 명문은 하상주 삼대의 고문이다. 예를 들어 『한서·교사지』에 따르면 옛 청동기에 관해 이소군에게 물으니 소군이 말하기를 이 청동기는 제환공 10년에 제나라 백침에 진열한 것이라 하였다. 이후 그 명문을 살피니 과연 제나라 환공의 기물이었다. 또한 미양에서 청동기가 발견되어 이를 관리에게 바치면 대부분 마땅히 종묘에 천거하였으며 장창은 청동기의 명문에 따라 의제를 올렸다. 무릇 이와 같은 것 역시 모두 벽중서와 같은 부류이다. 모두 이와 서로 비슷하다는 것은 그 문자가 모두 고문임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대부분 유사하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 孔子의 舊宅에서 발견된 壁中書 古文과 청동기 銘文을 같은 부류의 자형으로 인식하고, 또한 『說文』 古文의 시대를 黃帝시대 내지는 夏商周 三代까지 올라간다고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눈여겨 볼 수 있는 것은 청동기 銘文의 문자학적 가치에 대해 적어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서도 이와 유사한 古文과 청동기 銘文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남겼다.¹³⁾

12) 段玉裁 『說文解字注』, 卷十五. 『說文·敍』 「郡國亦往往於山川得鼎彝，其銘即前代之古文，皆自相似。」下.

13) 段玉裁 「薛尚功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二十卷寫本書後」, 『經韻樓集』, 卷七,

郡國往往於山川得鼎彝，其銘即前代之古文，皆自相似。是六經以古文傳，而所謂古文者，即如商周鼎彝之書，今世學者或未能知之也。許叔重之爲『說文解字』也，以小篆爲主，而以其所知之古文大篆附見。當許氏時，孔壁中『書』『禮』未得立於學官，鼎彝之出於世者亦少，許氏所見有限，偶載一二，亦其慎也。許氏以後，三代器銘之見者日益多，學者摩挲研究，可以通古六書之條理，爲六經輔翼。(여러 군국의 산천에서 왕왕 청동기가 발견되는데 그 명문은 바로 전대의 고문으로 모두 이와 서로 비슷하다. 육경은 고문으로 적혀 전해지는데 소위 고문이라 하는 것은 상주시대 청동기의 명문과 같은 것으로 지금의 학자들은 간혹 그것을 알지 못한다. 허신이『설문해자』를 지으면서 소전을 위주로 하고 그가 알고 있는 고문과 대전(주문)을 더해 보였다. 허신이 생존했던 시기에는 공자 구택의 벽에서 발견된『서경』과『예기』는 아직 학관이 서지 않았고 세상에 출토되는 청동기 역시 많지 않아 허신이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우연히 한 둘을 실으니 이 또한 그의 신중함이다. 허신 이후 하상주 삼대 청동기 명문이 날이 갈수록 많이 발견되어 학자들이 이를 직접 어루만지며 연구하여 육서의 조리를 꿰뚫게 되어 육경을 보좌하게 되었다.)

이처럼 청동기 銘文을 중국문자의 造字 원리인 六書를 파악하고 儒家 경전의 해석을 돕는 중요한 단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金文과 같은 古文字 자료를 문자 해석과 경전 연구에 활용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선진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古文的 출처와 시대를 商周시대 청동기의 銘文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분명한 오류이다.¹⁴⁾ 하지만 여기서 적어도 분명한 것은 청동기 銘文이 「六書之條理，爲六經輔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段玉裁와 같은 언어문자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는 학자가 金文 자료를 문자학 연구에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151쪽.

- 14) 『說文』 古文的 실체에 관해서는 西周시대 청동기 銘文과 동일하게 여기거나 戰國문자로 여기는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후 『說文』 연구를 통해 실제로 許慎이 西周시대 청동기 銘文을 널리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古文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戰國시기 문자임을 밝혀냈다. 吳濟仲 「清代的『說文解字』古文 연구에 관한 考察」, 295쪽.

것은 銘文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段玉裁가 청동기 銘文을 비롯한 金石文 자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몇몇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 먼저 대표적인 銘文 수록집인 宋代 薛尚功의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을 사람을 보내서 사본을 구한 뒤에 이에 대한 학술적 견해를 글로 남겼다.¹⁵⁾ 또한 기타 金石 자료에 관한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¹⁶⁾

乾隆壬辰，至成都，暇則欲訪尋文翁高朕講堂舊址，孟蜀廣政¹⁷⁾時所刻石，及宋皇祐¹⁸⁾以前所補，以爲能見殘碑破字於荊榛瓦礫中，未必不可以爲讎校之助也。而知交無同好者，獨往今府學中，光沈響絕，爲躊躇歎者久之。(건륭 임진년 성도에 이르러 시간을 내어 문翁의 고짐강당 옛 터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후촉 광정 시기의 석각과 송대 황우 시기 이전에 보각한 것을 무성한 잡목과 기와 조각 사이에서 이들 비석의 잔해와 깨진 문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교정의 보조로 삼는 것이 불가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뜻을 같이 하는 이를 사귀지 못해 홀로 금부학에 갔으나 빛이 잠기고 명성이 끊겨 오래도록 머뭇거리며 한숨 켰다.)

그가 여기서 「未必不可以爲讎校之助也」라 말한 바와 같이 段玉裁는 金石 자료가 교정을 보조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이는 후일 王國維가 제시한 출토 文物을 통해 문헌의 내용을 검증하는 二重證據法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기록에 따르면 段玉裁의 長子인 右白이 대단히 많은 고대 기물을 소장하였고 鳴榮光이 지은 『筠清館法帖』에는 그가 소장하고 있던 다수 청동기의 탁본이 수록되었다고 한다. 이에 흑자는 추측하기로 이와 같은 상당수 청동기나 탁본은 그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므로 段玉裁가 金石學에 대한 기호가 있었을 것으로 여겼다.¹⁹⁾

15) 「予亦遣人摹一本」(본인 역시 사람을 보내서 한 권을 손으로 베꼈다.) 段玉裁 「薛尚功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二十卷寫本書後」, 『經韻樓集』, 卷七, 152쪽.

16) 段玉裁 「跋黃蕘圃蜀石經毛詩殘本」, 『經韻樓集』, 卷一, 6쪽.

17) 廣政, 後蜀의 後主 孟昶의 年號. (938년-965년)

18) 皇祐, 宋의 仁宗 趙禎의 年號. (1049년-1054년)

물론 이와 같은 정황은 段玉裁가 金石 자료에 대한 관심과 일정한 접촉이 있었다는 충분한 방증으로는 삼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기호만으로 바로 金石文을 직접적으로 연구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²⁰⁾ 결론적으로 段玉裁는 청동기의 銘文을 비롯한 金石 자료가 六書의 조리를 꿰뚫고 六經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교정을 돕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은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고문자 자료를 『說文解字注』를 비롯한 문자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점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그는 許慎의 『說文』에 대한 일부 과도한 맹신과 추앙으로 金文 자료를 연구에 충분히 활용하려는 의지가 王筠을 비롯한 여타 說文學 연구자들에 비해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²¹⁾

4. 段玉裁의 金文 인용 實例

비록 段玉裁가 『說文解字注』를 비롯한 그의 저작에서 청동기 銘文을 비롯한 金石 자료를 활용한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는 없지만 몇몇 사례를 통해 그의 金文學 관점과 수준을 일정 부분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段玉裁는 「薛尙功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二十卷寫本書後」에서 經典의 내용을 金文을 통해 검증한 적이 있다. 『詩經·小雅』蓼蕭편에는「條革沖沖」(고삐 장식이 치렁치렁 하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대해 段玉裁는 다음과 같은

19) 李中生「段玉裁與金石銘刻之學」, 71쪽.

20) 예를 들어 대표적인 古器物 수집가인 청대 말기의 陳介祺(1813-1884)의 경우 역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다수의 文物을 수집하고 소장했으나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연구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21) 「今世無許書, 無識字者矣. 非古聖之字, 雖識猶不識矣. 今世無鐘鼎字, 無通許書字, 正許書字, 補許書字者矣.」(지금 『설문』이 없다면 문자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옛 성현의 글이 없다면 알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청동기의 명문이 없다면 『설문』의 문자에 능통하거나, 『설문』 문자를 바로잡거나, 『설문』 문자를 보충하지 못할 것이다.) 吳大澂『說文古籀補』, 陳介祺跋, 2쪽. 陳介祺와 같은 이는 이처럼 『說文』에 대한 맹신에 가까운 언급을 하였지만 청동기 銘文과 같은 고문자의 중요한 가치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段玉裁에 비해 더욱 개방적인 학문적 태도로 볼 수 있다.

상세한 풀이를 했다.²²⁾




『毛詩』言「條革」者四，傳曰，「條，轡首飾也。革，轡首也。」條字不見於『說文解字』，『說文解字』曰，「鑿，一曰轡首銅也。」考『博古圖』「周宰辟父敦銘」三皆有「攸革」字，薛氏此書「周伯姬鼎」有「攸勒」字，「黃簋」有「鑿勒」字，「岐陽石鼓」有「鑿勒」字，外此焦山古鼎亦有「攸勒」字，合而觀之，知鑿省作攸，攸即攸，假借爲鑿字，勒省作革。以鑿飾勒，猶唐宋人所云「金勒」。故「蓼蕭」毛傳曰，「鑿，轡首飾也。勒，轡首也。沖沖，垂飾兒。」不知何時施革於攸下，改爲條字，而於毛傳「鑿，轡首飾也」刪去「首飾」二字，使『詩』義晦於千古，非三代銘詞屢見，安所考證哉。（『시경』에는 「條革」이 네 번 보인다. 모씨전에 따르면 「條」는 고삐의 머리 장식이고 「革」은 고삐의 머리이다. 「條」자는 『설문』에는 보이지 않으며 『설문』에서는 「鑿」은 고삐 머리의 구리 장식이다」라고 하였다. 『박고도』의 「주재벽부돈」의 명문에는 셋 모두 「攸革」 글자가 보인다. 설상공의 이 책에서는 「주백회정」에는 「攸勒」 명문, 「인궤」에는 「鑿勒」 명문, 「기양석고」에는 「鑿勒」 명문, 이것 이외에 초산의 옛 정에서도 「攸勒」 명문이 들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鑿」의 자형이 생략되어 「攸」이 되었고, 「攸」은 곧 「攸」이며, 가차되어 「鑿」이 되었으며, 「勒」의 자형이 생략되어 「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리 고삐로 재갈을 장식한 것이 바로 당송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金勒」이다. 따라서 『시경·료소』편의 모씨전에서는 「鑿」은 고삐의 머리 장식이며 「勒」은 고삐의 머리이다. 「沖沖」은 늘어진 장식의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언제부터 「革」의 자형이 「攸」자 아래 붙어 「條」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모씨전 「鑿，轡首飾也」에서 「首飾」 두 자를 삭제하여 『시경』의 내용을 오랜 시간 흐리게 하였으니 삼대 기물의 명문을 여러 차례 보지 않았다면 어찌 이를 고증했겠는가.)

이와 관련한 내용은 『說文』속 段玉裁의 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說文』金部 「鑿，鐵也。一曰轡首銅也，从金攸聲。」²³⁾ (鑿은 철이다. 또 다른 풀이

22) 段玉裁「薛尙功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二十卷寫本書後」,『經韻樓集』,卷七, 151-152쪽.

23) 許慎『說文解字』,第十四篇上.

로는 구리로 만든 고삐의 머리 장식이다. 형부 金과 성부 攸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注文은 다음과 같다. 「別一義, 小雅, 條革冲冲, 毛傳曰, 條, 轡也. 革, 轡首也. 按條轡也, 當作條, 轡首飾也, 轉寫奪去二字耳.」(이와는 다른 풀이가 있다. 시경 소아편 條革冲冲에 대해 모씨전에서는 條는 轡이고 革은 轡首라 하였다. 따라서 마땅히 條를 轡首飾이라 해야 하나 전사되는 과정에서 뒤에 두 자가 없어졌을 따름이다.) 이처럼 앞선 내용과 일치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어지는 注文에서 「古金石文字作攸勒, 或作鑿勒」(고대 금석문에서는 攸勒 혹은 鑿勒이라 적었다)라고 하였다. 段玉裁가 말한 金文 자형은 薛尙功의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周伯姬鼎」 ²⁴⁾	「寅簋」 ²⁵⁾	「岐陽石鼓」 ²⁶⁾
		

李孝定은 금문 「攸」에 대해서 『詩經』 속 條革으로 『說文』의 鑿자로 판단했다.²⁷⁾ 금문 攸는 鑿와도 통용되며²⁸⁾ 또한 금문에서 鑿勒은 고삐의 구리 장식으로 혹은 攸勒이나 攸革으로도 적는다²⁹⁾. 따라서 『詩經』에서 말하는 條革이 바로 金文 속 條勒인 것이 청동기 銘文을 통해 분명히 검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條를 『설문』에서는 鑿라 하였는데 이것은 청동이나 구리와 같은 금속 성분을 의미한다. 또한 革은 勒으로 말의 재갈이다. 고대

24) 薛尙功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 卷第十. 『宋人著錄金文叢刊初編』.

25) 薛尙功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 卷第十五. 『宋人著錄金文叢刊初編』.

26) 薛尙功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 卷第十七. 『宋人著錄金文叢刊初編』.

27) 「金文用此字爲人名者, 可以不論. 至「攸勒」連文者, 舊說以爲卽『詩』之條革, 亦卽『說文』之鑿, 其說是也.」(금문에서 이 글자를 인명으로 사용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攸勒」두 글자는 과거에 『시경』의 條革인 『설문』의 鑿자로 여겼는데 그 풀이가 정확하다.) 즉 段玉裁의 관점이 정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李孝定 『金文詁林讀後記』, 106쪽.

28) 王文耀 『簡明金文詞典』, 165쪽.

29) 王文耀 『簡明金文詞典』, 428쪽.

귀족의 재갈은 가죽으로 만들어 금속 장식을 했기 때문에 鑿勒이라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처럼 段玉裁는 청동기의 銘文을 통해 經典의 정확한 내용을 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한 「非三代銘詞屢見, 安所考證哉」(삼대 기물의 명문을 여러 차례 보지 않았다면 어찌 이를 고증했겠는가.)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段玉裁는 金文의 가치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앞선 내용과 같이 段玉裁가 薛尚功의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을 접한 후에 청동기 銘文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³⁰⁾

又如古言均, 今言韻, 韻字不見於『說文解字』, 而徐鉉新增有之. 予作『六書音均表』, 用韻字不用韻字, 或曰韻正韻俗, 爾何從俗也. 予曰, 古言音均, 後人分別, 入音部宜以从音从勻, 勻亦聲之字爲近是, 而韻字較遠. 今薛氏此書卷一內載董武子所藏商鐘銘有韻字, 卷六內載方城范氏所藏周「曾侯鐘銘」有韻字, 是韻字古文有之, 較諸韻字, 孰雅孰俗矣. 舉此二事用見古文之當考而古器之不可忽如是. (또한 고대에는 均이라 하였지만 지금은 韻이라한다. 이 韻자는 『설문해자』에는 보이지 않았으나 서현이 새롭게 증보하여 수록되었다. 내가 지은 『六書音均表』에는 韻자를 사용하고 韻자는 사용하지 않았으니 혹시 韻이 정자이고 韻이 속자라면 어찌 속자를 따르겠는가. 내가 이를 말하자면 고대에는 자음이 均이나 후대 사람들이 이를 분별하여 音부에 넣고 从音从勻의 勻이 亦聲인 글자로 여긴 것이 사실에 가깝고 韻은 이러한 내용과는 비교적 멀다. 지금 설상공이 지은 이 책의 제일권에는 동무자가 소장한 상대의 중에 韻자 명문이 보이며, 또한 제육권 방성 범씨가 소장하고 있는 주대 「증후중」의 명문에도 韻자가 보인다. 이러한 韻자는 고문에 수록되어 있으니 여러 韻자와 비교하여 어느 것이 정자이고 어느 것이 속자이겠는가. 이러한 두 가지 사례로 보아 고문자를 직접 활용하여 고증하는 것과 고대 기물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이 이와 같다.)

薛尚功의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에는 段玉裁가 언급한 바와 같이 아

30) 段玉裁 「薛尚功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二十卷寫本書後」, 『經韻樓集』, 卷七, 152쪽.

래와 같은 두 개의 명문이 수록되어 있다.

「商鍾三」 ³¹⁾	「曾侯鐘一」 ³²⁾
	

다만 段玉裁는 薛尙功이 이 둘 모두를 韻으로 考釋했다고 적고 있으나 실제로 薛氏는 「商鍾三」에서는 韻으로 그리고 「曾侯鐘一」에서는 韻으로 다르게 해석하였다. 결국 薛氏는 韻과 韻을 동일한 글자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段玉裁는 이 두 銘文이 동일한 글자임은 분명하나 韻은 正字이고 韻은 俗字에 속하는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직접적인 증거가 바로 청동기 銘文의 수록 자형이었다. 이로보아 단옥재는 金文을 비롯한 고문자의 활용법과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말한 「用見古文之當考而古器之不可忽如是」(고문자를 직접 활용하여 고증하는 것과 고대 기물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이 이와 같다)는 언급은 이러한 추론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사례가 薛尙功의 저서에서 단서를 찾은 것이라면 다음은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서 金文과 상관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也」에 대한 許慎의 풀이는 「𠃉, 女陰也. 从 丩象形, 丩亦聲. 𠃉, 秦刻石也字.」(也是 여성 생식기이다. 丩으로 구성된 상형자로 丩는 또한 성부이다. 𠃉는 진대 석각문 자형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段玉裁의 注는 아래와 같다.³³⁾

『顏氏家訓』載開皇二年，長安掘得秦鐵稱權，有鐫銘，與『史記』合。「其於久遠也」，也字正作𠃉，俗本譌作世。薛尙功『歷代鐘鼎彝器款識』載秦權一，秦斤一。文與『家訓』大同，而權作𠃉。（『안씨가훈』에 따르면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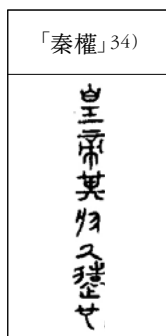
31) 薛尙功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卷第一。『宋人著錄金文叢刊初編』。

32) 薛尙功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卷第六。『宋人著錄金文叢刊初編』。

33) 『說文』，卷十二，丩部。

2년 장안에서 철로 만든 저울 權을 발굴했다. 거기에는 『사기』와 일치하는 「其於久遠也」의 명문이 적혀 있었다. 也의 정자는 𠄎이나 속자는 𠄎이 변되어 𠄎가 되었다. 설상공의 『역대종정관지』에는 秦權과 秦斤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 명문이 『가훈』과 거의 같았으며 權에서는 𠄎로 적었다.)

段玉裁가 언급한 薛尙功의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을 살펴보면 실제로 秦權에 「皇帝其於久遠也」에 해당하는 銘文이 보이며 다음과 같다.



容庚의 풀이에 따르면 청동기 銘文에서 也와 𠄎는 동일한 글자로 뱀의 모양을 본뜬 象形字이다.³⁵⁾ 그러므로 『說文』에 수록되어 있는 石刻文과 小篆 자형 모두 訛變된 것이며 이에 따른 풀이 또한 오류이다. 也는 古文에서는 주로 문장의 끝에서 語氣助詞로 사용된다. 종합하면 먼저 字義에 관해서는 段玉裁가 비록 也의 本義에 대한 풀이는 하지 않았지만 『說文』 풀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 또한 평소 許慎을 존경하는 학술적 태도로 보아 『說

34) 薛尙功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 卷第十八. 『宋人著錄金文叢刊初編』.

35) 「它與也爲一字, 形狀相似, 誤析爲二. ……說文, 也, 女陰也, 望文生訓, 形意俱乖, 昔人蓋嘗疑之.」(它와 也는 동일한 글자로 자형이 서로 유사하여 두 개의 글자로 잘못 나누었다. ……설문에서는 也를 여성 생식기로 풀이했으나 이는 글자만 보고 본뜻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자형과 자의가 모두 어긋난 것이다. 이에 과거에도 이러한 풀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었다.) 容庚 『金文編』, 876쪽. 『金文編』2025와 2147에는 각기 也와 𠄎의 金文 자형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을 비교하면 『說文』에 수록된 小篆 𠄎와 거의 유사한 동일한 자형임을 알 수 있다.

文』내용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음으로 字形에 관해서 段氏가 말한 「也의 정자는 𠄎이나 속자는 와변되어 卍가 되었다。」는 풀이 역시 오류이다. 『甲骨文編』에 수록된 자형은 𠄎과 같이 뱀의 모습을 본뜬 모양이며³⁶⁾ 『金文編』의 也의 자형은 𠄎<師遽方彝>, 𠄎<齊侯敦> 등과 같다.³⁷⁾ 이후 戰國시대를 거치며 모양이 완전히 분리되어 楚簡과 秦簡 등에서 𠄎과 같은 자형이 되었으며 小篆은 이로부터 변형되었다.³⁸⁾ 결국 也에 대한 段玉裁의 字義와 字形 풀이는 모두 오류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가 내린 결론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 청동기 銘文을 이용하여 『說文』의 내용을 비교하려는 시도는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³⁹⁾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段玉裁의 正字와 俗字에 대한 관념이다. 앞선 韻과 韻에 관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청동기 銘文에 들어 있는 고문자 자형을 正字로 그리고 후에 이로부터 변형된 자형을 俗字로 보았다. 또한 也의 경우 역시 秦代 石刻文 자형을 小篆에 비해 正字로 여기고 있다. 결론적으로 段玉裁는 金文이나 石刻文과 같은 소위 金石文을 正字로 여기고 이후에 등장하는 訛變되거나 혹은 변형된 자형을 俗字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正字와 俗字는 단순히 시대의 선후 관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므로 段氏의 이와 같은 분류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古文字와 이후의 문자로 구분하는 문자의 변천 시기에 따른 시대 구분의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說文』 𠄎部에 수록되어 있는 對의 본 자형은 對으로 그 구조는 从𠄎从口从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함께 수록된 或體 자형 對는 从口가 아닌 从士의 구조이다. 이에 대해 許慎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⁴⁰⁾

36)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甲骨文編』, 附錄上, 編號5023.

37) 容庚 『金文編』, 卷十三, 編號2147.

38)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499쪽.


39) 반면 王筠은 『說文釋例』에서 許慎의 풀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案女陰之說, 他無所見, 姑置無論. ……謂是許君原文, 吳不信也.」(여성 생식기에 관한 풀이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으니 잠시 이를 거론하지 않는다. ……이처럼 허신의 원문 풀이를 나는 믿지 않는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청동기 銘文을 보았다는 기록과 함께 字義를 밝히려 했으나 그 역시 也의 本義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說文解字詁林』, 第十冊, 274쪽.

對, 對或从士, 漢文帝以為責對而面言, 多非誠對, 故去其口以从士也. (대의 이체자형은 从士로 이루어져 있다. 한문제가 여기기에 직무를 완성하라는 지시에 대한 대답이 대부분 불성실하였다. 이에 본 자형의 편방인 口를 제거하고 士로 대체하였다.)

여기에 段玉裁는 다음의 注를 남겼다.

錯曰士事也, 取事實也. 按篇韻皆作士, 未知孰是. 趙氏明誠曰, 據古鐘鼎皆作對. 是漢文亦從古耳, 非臆更也. (徐錯의 설명에 따르면 士는 事로써 사실을 취한다는 의미이다. 편과 운에 따르면 모두 士의 편방으로 적고 있으니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조명성에 따르면 고대 청동기의 명문은 모두 對로 적고 있으니 한문제 역시 이를 따른 것일 뿐 본인의 생각만으로 고친 것이 아니다.)

對의 甲骨文과 金文 등의 古文字 자형은 아래와 같다.





甲骨文 41)	 <甲七四零>	 <前四、三六、四>		
金文 ⁴²⁾	 <同簋>	 <卯簋>	 <貉子卣>	 <井侯簋>

『甲骨文編』에서는 「从𠂔从又, 與金文同」(𠂔과 又의 구조이며 금문과 같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金文 자형은 甲骨文과 동일하며 容庚은 이에 대해 「从𠂔从又, 非从口从寸」(𠂔과 又의 구조이며 口와 寸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아니다)라고 적었다. 다시 말해 甲骨文과 金文의 구조가 일치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說文』의 자형 풀이가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40) 『說文』, 卷三, 𠂔部.

4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甲骨文編』, 卷三五, 編號0287.

42) 容庚『金文編』, 卷三, 編號0396.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갑골문과 금문에는 許慎이 말한 从口의 자형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로 對의 本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異見이 있었다. 먼저 李孝定은 从辛의 하단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从土로써 그 자형이 土와 유사하여 『說文』에서는 从土라 한 것으로 여겨 對의 구조를 从辛从土从寸으로 보았다. 이로부터 의미하는 바는 흙 위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나 분명히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對의 本義를 뚜렷이 나타냄이라 하였다.⁴³⁾ 또 張日昇은 對의 本義는 符節로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引伸되어 對答 혹은 對膺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⁴⁴⁾ 한편 對의 金文 자형 중 한 가지 특이한 것은 <同篇>에 보이는 로 이에 대해 容庚은 从辛의 구조라 여겼다. <卯篇>의 는 从辛의 편방이 점차 从辛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 의 자형에서 볼 수 있듯이 从土의 편방은 후에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董蓮池는 對의 本義를 손으로 고대의 형벌 기구인 杵를 들고 있는 것과 상관있는 것으로 여기고 이로 인해 从辛을 편방으로 하는 글자는 대부분 治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⁴⁵⁾ 결국 對의 本義는 다스리는 것으로 對는 본래부터 許慎이 말한 从口나 从土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說文』에서 본래의 자형인 對보다는 或體 자형 對가 古文字에 가까우며 許慎의 本義 풀이 또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段注에 언급된 趙明誠은 宋代의 대표적인 金石學 연구자로 『金石錄』과 같은 연구서를 남겼다. 段玉裁는 金文에 근거하여 字形의 구조를 파악한 趙明誠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金文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론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로 보아 段玉裁 역시 金文 자료를 문자학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으며 활용 가치 또한 인지하고 있으나 학술적 완성도는 段氏의 다른 영역에서의 성취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段玉裁의 說文學 성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영향 또한 심원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金文學에도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⁴⁶⁾

43) 「對之本義爲明顯」(對의 본의는 뚜렷이 나타냄이다.) 李孝定 『讀說文記』, 64-65쪽.

44) 王文耀 『簡明金文詞典』, 410쪽.

45) 董蓮池 『說文解字考正』, 102쪽.

5. 結 論

說文四大家를 대표하는 清代 학자인 段玉裁는 文字學은 물론 音韻學 方面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실로 당시를 대표하는 小學家라고 칭해도 조금의 손색이 없다. 특히 그의 대표작인 『說文解字注』는 許慎의 문자학 이론을 계승 발전하고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說文』의 가치를 좀 더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清代는 宋代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靑銅器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金文學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에 많은 靑銅器가 새롭게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시대 배경을 바탕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수준 높은 金文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쳐 清代 말기에 이르러 金文學은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金文學 연구 성과는 清代를 거치며 완성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說文學과 金文學이 동시에 꽃을 피우는 시대 상황에서 충분한 학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段玉裁가 과연 문자학 영역에서 청동기 銘文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었는가 하는 점은 충분히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에 관해 일부 연구자들은 段玉裁가 金文學 方面에도 충분한 조예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역시 說文四大家의 하나인 王筠 등의 성과에 비해 段氏의 金文學 성과는 미비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清代 說文學者들의 이론적 배경과 비교하고 또한 段玉裁가 실제 金文에 대해 언급했던 사례를 가지고

- 46) 羅振玉은 갑골문의 上下 자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段玉裁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적었다. 「段先生注『說文解字』, 改正古文之 上 卜 二字爲 ㄣ ㄣ, 段君未嘗肆力於古金文, 而冥與古合, 其精思至可驚矣. 又卜辭中上下及下上, 二字連文者皆合書之, 古金文亦然.」(단옥제는 『설문해자』 주석에서 고문인 上 卜 두 자를 ㄣ ㄣ로 수정하였다. 단옥제는 고대 금문에 힘을 쓴 적이 없으나 심오하게도 고문과 들어맞으니 그 정교한 사고가 참으로 놀랍다. 또한 갑골문의 上下 및 下上 두 글자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모두 합문으로 고대 금문 또한 그러하다.) 羅振玉『增訂殷虛書契考釋』, 卷中, 13쪽. 段氏가 이처럼 上의 古文을 ㄣ으로 교체하고 小篆을 上으로 여긴 것은 정확한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간단한 金文 자형으로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段氏가 뛰어난 발견을 했다고 여기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段玉裁는 청동기 銘文과 같은 古文字 자료가 文字學 연구와 經典 연구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에 접할 수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金文類 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薛尚功의 『歷代鐘鼎彝器款識法帖』이나 趙明誠의 『金石錄』 등과 같은 宋代의 서적을 인용한 사례가 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으로 金文 서적을 찾아서 연구에 활용했다고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국 段玉裁가 金文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에 기인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段氏의 문자 풀이에서 실제 金石文과 같은 銘文을 이용하거나 언급한 사례는 대단히 방대한 『說文解字注』의 내용에 비해 극히 소수에 불과하며 앞선 본고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학술적 정확도 역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段玉裁는 金文學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하거나 또는 구체적인 연구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따라서 文字學의 관점에서 段玉裁의 학술적 성향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위대한 說文學者인 반면 뛰어난 金文學 연구자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참고 문헌

- 羅振玉(1981), 『增訂殷虛書契考釋』, 臺北: 藝文印書館.
 姚孝遂(1983), 『許慎與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
 陳新雄(1983), 『古音學發微』, 臺北: 文史哲出版社.
 容庚(1985), 『金文編』, 北京: 中華書局.
 王筠(1987), 『清詒堂文集』, 山東: 齊魯書社.
 吳大澂(1988), 『說文古籀補』, 北京: 中華書局.
 許慎, 段玉裁注(1992), 『說文解字注』, 臺北: 書銘出版公司.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1992), 『甲骨文編』, 北京: 中華書局.
- 李孝定(1992), 『讀說文記』,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李孝定(1992), 『金文詁林讀後記』,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 楊家駱(1994), 『說文解字詁林』, 臺北: 鼎文書局.
- 姚孝遂(1995), 『中國文字學史』, 吉林: 吉林教育出版社.
- 王文耀(1998), 『簡明金文詞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李恩江(2000), 『文白對照說文解字』, 鄭州: 中原農民出版社.
- 劉盼遂(2002), 『劉盼遂文集』,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董蓮池(2005), 『說文解字考正』, 北京: 作家出版社.
- 李聰慧(2005), 『宋人著錄金文叢刊初編』, 北京: 中華書局.
- 段玉裁(2007), 『經韻樓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李中生(1988), 「段玉裁與金石銘刻之學」, 『學術研究』第3期.
- 吳濟仲(2010), 「清代的『說文解字』古文 연구에 관한 考察」, 『中國言語研究』第33輯.

❖ ABSTRACT

A Study of Bronze Epigraphy of ShuoWen's Scholar
in the Qing Dynasty

Oh, Jae Joong

The Chinese Bronze Epigraphy is based on the study of the Ancient Bronze, which is excavated from the ground and it is also related to Archeology and Historical Science as well. From the Han dynasty, to the Song dynasty and to the Qing dynasty. Chinese Graphonomy had a splendid development. Including *ShuoWenJieZi* in the Chinese Graphonomy and the study of Bronze got a shining improvement. *ShuoWenJieZi* as a key for deciphering ancient Chinese characters. With constant reference to the *ShuoWenJieZi*, Qing scholars pioneered the earliest large scale interpretations of bronze inscriptions. Several Qing Dynasty *ShuoWen* scholars such as a WangYun and *DuanYuCai* have made research in the Bronze Epigraphy. Through this research, we can figure out whether there is any relevance between the traditional study of Epigraphy and the Qing dynasty's.

Key Words

청대, 설문해자, 금문학, 청동기, 단옥재

Qing dynasty, ShuoWenJieZi, Bronze Epigraphy, Bronze Vessel, DuanYuCai

논문접수일: 2013. 05. 10.

심사완료일: 2013. 06. 02.

게재확정일: 2013. 06. 07.